

제46회 KISTEP 수요포럼 요약

2016. 06

1. 개 요

□ 일 시 : 2016년 6월 15일(수) 10:00~12:00

□ 장 소 :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층 국제회의실

□ 주 제 : 「금융과 IT의 융합, 핀테크 산업동향과 우리의 과제」

2. 세부 일정

시간	내용	비고
10:00~10:05	개회사	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
10:05~10:10	발표자 소개	(사회)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
10:10~10:50 (40분)	주제 발표	(발표)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
10:50~11:30 (40분)	패널 소개 및 지정토론	(좌장)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(패널) 황극인 코스콤 핀테크 연구부 부장 강임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센터 연구위원
11:30~12:00 (30분)	자유토론	참석자 전원
12:00	폐회	(사회)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

2. 주제 발표 주요 내용

□ 발표 주제 : 금융과 IT의 융합, 핀테크 산업동향과 우리의 과제
(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)

□ 한국에서 핀테크 열풍, 2년 째 진행

- 국내 핀테크가 본격적으로 상륙한지 2년. 한때 유행이라 생각했던 핀테크 열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진행 중
- 정부의 적극적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로 인해 비대면 인증허용, 지분형 클라우드 펀딩 시행, 인터넷전문은행 허가 등의 정부정책이 발표 됨.
- 핀테크 스타트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우수한 성과를 올린 사례가 발표되고 있음. (P2P업체“8퍼센트”는 KG이니시스로부터 200억 가까운 규모의 투자를 받고 있으며, 이외 어니스트펀드, 렌딧 등 많은 P2P대출회사들이 성장 중)
- 알파고 충격 이후 금융권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음.

□ 해외 핀테크업계 동향

- 글로벌 핀테크산업은 매우 활발한 수준임.
- ‘15년 핀테크 투자는 여전히 상승중이며(렌딩클럽, 온덱, 스쿼어 등 상장), 대기업의 핀테크 투자, 글로벌 뱅크들의 투자, 핀테크 회사와 금융회사 간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임.
- 허나, 투자 상품에 대한 문제로 인한 책임을 지기 위해 ‘렌딩클

럽’의 CEO는 파면되었고,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. 이에 핀테크 산업에 대한 Good News와 Bad News가 공존하는 성향을 보임.

○ 핀테크 대국, 중국의 부상

- 투자규모가 조 단위일 뿐만 아니라, 알리바바, 텐센트 등이 앞서 알리페이, 텐페이 등을 보급시키며 미국과 함께 핀테크 2대 강국으로 성장.
- 중국의 핀테크는 신용정보서비스 공급부족현상과 지급결제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임과 더불어,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금리규제로 생김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혁신적 발전이 가능했음.

○ 핀테크 강국, 창업국가 이스라엘

- 핀테크 투자와 창업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음.
- 빅데이터, 사기방지, 보안 등 핀테크 관련기술에 정통하며 성공 사례,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음. 혁신에 개방적인 금융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핀테크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.

○ 글로벌 핀테크 시사점

- 핀테크는 여전히 글로벌 메가트렌드(IPO증가 추세)
- 글로벌 시장 공략과 더불어 글로벌 은행의 투자 증대
- 중국, 이스라엘과 같은 핀테크 강국을 주목하여 적절한 벤치마킹 대상 선정 필요.

□ 미국과 한국의 핀테크 환경 비교

- 미국의 규제는 Negative System, 한국의 규제는 Positive System
- Negative System : 항목으로 지정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허

용하는 System.

- Positive System : 항목으로 지정된 것만을 허용하는 System.

○ 이외 다양한 미국과 한국의 환경 차이

- Public Data에 대하여, 미국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사회임에 반해 한국은 정보공개에 대하여 인색한 사회
- 미국은 고객중심의 사고, 한국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
- 미국은 보안에 대한 유연한 자세를 취하며, 한국은 보안에 대한 경직된 자세를 취함.
- 미국은 아웃소싱문화, 한국은 내부에서 모든 것을 수급해야 하는 문화를 보임.
- 이외 한국은 고도화된 금융서비스, 판치금융 등의 특성을 보임.

□ 한국 핀테크생태계 활성화 조건

○ 제도적 측면

- 네거티브(Negative) 규제체제로의 전환
- Public Data 적극적 공개와 보안에 대한 유연한 자세
-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
- 금융권과 핀테크스타트업의 적극적 협업

○ 전문성 측면

- 핀테크 성공기업과 기업가의 등장
- 핀테크 관련 활발한 투자와 인수합병
- 핀테크에 전문성을 쌓는 인력 확보 및 고객 확보

3. 패널토론 주요 내용

【 황극인 코스콤 핀테크연구부 부장 】

□ 핀테크 산업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

- 핀테크 산업의 문제점
 - 국내 핀테크 산업은 유행에 민감.
 - 또한, 자금결제·송금 등 특정 분야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.
- 스타트업을 위한 법·제도 체계의 정비 필요
 - 금융정보의 접근 및 보관에 따른 위험이 존재함과 더불어 요구되는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.
- 핀테크 생태계를 위한 제언
 -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 간 금융데이터 및 타도메인의 데이터 공유가 요구되며 이를 연결하는 오픈API 플랫폼구축이 시급함.

【 강임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】

□ 정부 정책적 관점에서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제언

- 핀테크, 규제개혁을 위한 창조경제의 도구
 - 핀테크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가 기존 규제에 문제점이 존재함을 밝힘.
- 인터넷은행 인가 사례를 통한 핀테크 산업의 정책적 문제점 제시
 - 인터넷 은행 인가 사례에서 정부는 혁신적인 금융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가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함. 허나, 선정방식은 취지와 맞지 않아 보임

며 대기업의 계열사로 은행을 시작하는 것은 혁신적이라 할 수 없다고 사료 됨.

- 이처럼, 핀테크 산업 또한 흡수하는 정책에 철학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됨. 창조경제는 어떻게 정부에서 추구해 나가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임.

【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센터 연구위원 】

□ 금융의 관점에서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제언

-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추후 방향 제시
 - 현재 핀테크 업체는 금융업의 앞단(front-end)을 보다 소비자친화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.
 - 금융업의 수익증대, 금융서비스 생산 및 리스크 관리자체 변화보다는 가격절감, 서비스방식의 다양화와 같은 금융업 모든 부분을 통합하여 그동안 은행이 누리고 있던 수익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함.
 - 이러한 핀테크 활성화로 인해 비용효율성이 증가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소비자 후생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.
- 핀테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
 - 소비자 중심의 정책도입이 중요함. 감독당국 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.
 - 핀테크 기업은 금융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더불어 금융노하우 등을 습득할 필요가 있음.
 - 감독당국은 산업의 발전보다는 안전성과 건전성을 유지하여 소비자 보호에 보다 주력해야 함.